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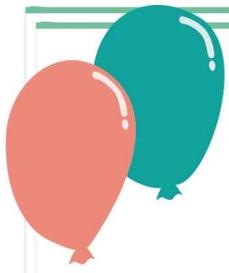
2017. 06. 05(월)

작년 윤동주 시인의 삶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詩 부문 1위에 오르는가 하면 개봉된 영화 '동주'도 인기를 끌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바른 생각을 갖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부로부터 구하는 경우와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타산지석처럼 남의 잘잘못을 보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산사에서 도를 닦는 수도승처럼 스스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 생각(正心, 정심)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大學과 中庸이라는 고전을 보면 신독(慎獨)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는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기수양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신독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생활습관이 우리에게겐 필요하다.

즉,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되고 병적이라고 생각하면 아프고, 실패를 생각하면 정말 실패의 길로 들어간다.

6월은 우리 공사 임시 사무동 이전이 있는 달이다.

물리적으로 경영지원본부와 마켓팀본부가 생산본부와는 다른 사무실을 쓰게 된다.

심훈의 '상록수'에서 '돈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을 안다'처럼

생산본부 임직원들은 타 본부의 이전으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다소 섭섭하게 생각될 것이고, 이사 가는 본부는

낯선 곳에서 정착하느라 어색하고 생산본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소홀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하나가 아니던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다고 느끼면 하나가 되고,

이를 곧 행동으로 옮겨 서로가 소통과 협업을 한다면

진정 한 마음, 한 방향이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주 타본부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업무협의를 잘하는 우리 공사가 되길 빌어본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왜?

모든 일은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